

“누가·언제·어디서 맞나” 광주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 순조

101만 5000명 내달초부터 순차적...장소·방법 등 달라
요양병원·고위험시설종사자·65세 이상 우선 접종키로

광주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광주시민의 70%(101만5000명)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백신은 2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접

종장소, 방법 등을 달리해 진행한다.
우선 접종대상자는 요양병원, 노인 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시설 종사자, 65세 이상 등으로 의료기관 자체접종, 보건소 접종팀 방문접종,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접종 등의 방

법으로 진행한다.
예방접종센터는 초저온 냉동보관이 필요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접종 할 예정이며 주차장, 대기 장소, 환기시설 등이 갖춰진 장소로 자치구별 1개소씩 총 5개소를 최종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최종 후보지로 동구문화센터와 서구 영주종합체육관, 남구 다목적체육관, 북구 전남대학교스포츠허브, 광산구 광주보훈병원 재활체육관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백신 플랫폼인 아스트라제네카, 안센 등의 백신은 기존 국가예방접종 실시 민간 위탁의료기관 중 참여의사를 밝힌 479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료기관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접종 완료 후 15분~30분 정도 관찰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접종센터에서는 119 및 앰블런스를 상시 대기토록 해 응급상황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시는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해 신경과, 감염내과, 법의학 교수 등으로 민·관 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백신접종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 보상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피해조사반에 의뢰할 예정이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는 체계적인 접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111년 역사’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 착수

추진단 발족...2023년 예비타당성·2024년 건립 계획

전남대학교병원이 새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추진단을 발족했다.
전남대병원은 28일 오후 병원 6동 백년홀에서 새병원건립추진단 발족식을 갖고 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병원건립추진단은 추진위원회와 추진본부, 추진자문단 등 3개 조직으로 구성됐다.

로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안영근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병원보조자와 임직원, 외부 전문가,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새병원 건립을 위한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안영근 병원장은 “현재의 전남대병원은 건물의 노후화, 병동 확충 공간 부족, 효율적 진료 저하, 심각한 주차난 등으로 미래 의료 실현해 나가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며 “전남대병원의 미래를 위해 새 병원 건립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추진본부는 민용일 응급의학과 교수를 본부장으로 부분부장·실무총괄·실무전담·실무자문·행정지원전담 등으로 조직돼 새 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 실무 총괄 및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1910년 광주 옛 전남도청 부지에 ‘자혜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전남대병원은 5년 뒤인 1915년 동구 학동 현 부지로 이전했다.

자문단은 학계, 의료계, 정치·법조·언론계, 경제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인사 20여명으로 구성돼 새병원 건립 추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현안 자문, 건립사원 후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호남 거점병원으로 자리잡은 전남대병원은 협소한 부지와 건물 노후화로 인해 불편이 제기됐으며 병원 이전 또는 새 병원 건립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의 새병원은 앞으로 추진단의 활동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예비타당성을 거쳐 2024년부터 새병원건립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8년 7월에는 병원 구성원·의과대학·대학 동문·지역 사회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새 병원 건립의 당위성과 이전’ 등을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됐으며 ‘현 위치 고수’와 ‘타지역 이전’이 팽팽했다.

새병원은 최상의 환자맞춤형 통합진료, 최첨단 헬스케어 융복합의료연구, 세계적인 의료이더 양성이 이뤄지는 스마트병원을

김민정기자



대형교회 교인 전수검사소 ‘한산’

28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대형교회 주차장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교인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가 펼쳐지고 있다. 최근 지역 내 집단감염원인 IM선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 시설과 접점이 있는 이 교회에서는 20여 명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시 “안디옥교회 교인, 진단 검사 받아야” 법적 대응도 불사

TCS국제학교와 점접 확인
검사 회피 의혹에 강경 조치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 집단 감염원으로 떠오른 안디옥교회 교인들에게 자진 검사를 강력 권고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8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디옥교회 교인이 이날까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강

제로 (교인)명단을 확보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교회 관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회 예배당 좌석 수는 2000석이지만, 최근 교인 수는 700-8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부목사가 설교한) 예배에 참석한 553명 명단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광주 TCS국제학교와 점접이 확인된 안디옥교회에서 30여 명이 감염된 데다가,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검사

를 회피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강경 조치로 풀이된다.

안디옥교회에서는 지난 25일 1516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전엔 화순·보성 등 전남에서도 관련 n차 감염자가 나오기도 했다.

기동취재본부

토요일은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